



나·무·에·엮·힌·동·화/자작나무

말하는 자작나무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러시아 우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내부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끼니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자 몇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자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떡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도 할 수 없지. 감자 윤이를 해야겠다.”

할머니는 불을 피우려고 헛간에 들어가 장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장작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영감, 장작이 떨어졌어요. 숲에 가서 나무를 해 봐요. 자작나무가 가장 잘 타니 이왕이면 그것을 구해 봐요.”

“알겠소. 얼른 다녀오이다.”

할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섰다.

숲 속에는 나무들이 백백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전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등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작나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자작나무를 구해 오라고 했지?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네.”

할아버지는 숲 속을 한참 헤매 다녔습니다. 그래서 갸실히 자작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흠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혼자 숨어 있으니 찾을 수가 없었지.”

할아버지는 흥분 서 있는 자작나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할아버지 입에서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야,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로구나! 자르기가 아까워.”

할아버지는 그냥 발길을 돌리려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할머니가 펄쩍 뛴겠지? 성미가 급하고 사나워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는 생각할 해도 겁이 나는지 땀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할 수 없지. 자작나무를 베어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내려찍으려고 했습니다.

바람 그 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작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베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도끼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나무가 사람처럼 말을 하다니!’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자작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 자작나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저를 베지 마세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자작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 간절히 부탁하니 차마 너를 베 수가 없구나. 알았다. 네 말대로 하마.”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렘, 숲 속으로 갔더니 자작나무가…….”

할아버지는 숲 속에서 겪은 일을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쫓쫓, 자작나무가 그때워 소리를 한다고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럴 때는 가지를 몇 개라도 부러뜨려 봐야지요. 당장 불을 피웁니다 나무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숲 속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작나무에게 가서 푼이 죽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할렘한테 야단을 맞았단다. 자작나무야, 먹안하지만 네 가지를 몇 개라도 주지 않겠니?”

자작나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가지는 부러뜨리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해 드릴 테니 그냥 집으로 가세요.”

마음이 약한 할아버지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 마당에는 나뭇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자작나무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준다더니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자작나무를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한층 벌떡 났습니다.

“이 당당한 양반아! 불을 피웁니다 나뭇가지만 있으면 뭐 해? 집에는 겨우 감자 몇 알밖에 없는걸. 겨우 내내 굶고 앉아 있을 거야? 다시 가서 부탁해 봐요. 빵을 만들든 밀가루라도 달라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등이 떠벌려 자작나무에게 갔습니다.

“자작나무야, 너한테 또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다. 글썄, 할렘이 밀가루를 얻어 오라고 난기지 뭐니. 연치없지만 한 번만 더 나를 도와 줘라.”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가시면 원하는 것을 얻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작나무가 고마웠습니다. 집에 가 보니 밀가루 포대가 헛간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을 먹고도 남을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 같으니라고! 밀가루만 쌓아 놓고 있으면 뭐 해? 우리도 남들처럼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할 것 아냐. 어서 가서 황금 덩어리를 달라고 해요.”

“할렘, 목심 쥘 그걸 부러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잖아. 자작나무도 이번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 거요.”

“잔말 말고 빨리 다녀와요!”

할머니는 소리를 썩 지르고 할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자작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작나무야,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어처구니

없게도 할머니 이번에는 황금 덩어리를 얻어 오라는 거야. 이 말을 어찌하면 좋니.”

“.....”

할아버지가 하소연해도 자작나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작나무를 욕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름다운 자작나무가 잎이 낙엽처럼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작나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작나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마당에 황금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할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영감, 우리한테 황금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어쩌죠? 그걸로 우리 집에 도둑이 들 텐데.”

“정말 그렇게. 남들이 모르는 곳에 황금 덩어리를 감쪽같이 감춰 놓아야겠는걸.”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어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감, 감춰 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누가 봐서 우리 몰래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아무도 우리한테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봅시다. 당신이 한 번 더 자작나무에게 다녀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일러 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작나무를 찾아갔다가 놀라운 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작나무가 입을 다 떼려고

빨라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갇힌 입을 열었습니다.

“자작나무야,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우리는 황금 덩어리를 얻고 나서 북안에 떠돌고 있다. 누가 그것을 훔쳐 갈까 봐 말이야. 그러니 우리 집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 못하게 우리를 아주 무섭게 만들어 다오.”

자작나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집에 가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고맙다.”

할아버지는 자작나무에게 인사하고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무섭게 생긴 앞골 한 마리가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앗, 굼이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때,

“크아앙!”

앞골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숲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굼을 쫓아가다가 자기 똥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덮여 있고, 손발에 낫카로운 손톱, 발톱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크아앙!”

굼으로 변해 버린 할아버지도 괴성을 지르며 할머니를 찾아 숲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숲 속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생긴 굼 부부가 대낮에도 사냥개 운부짖으며 숲 속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입니다.